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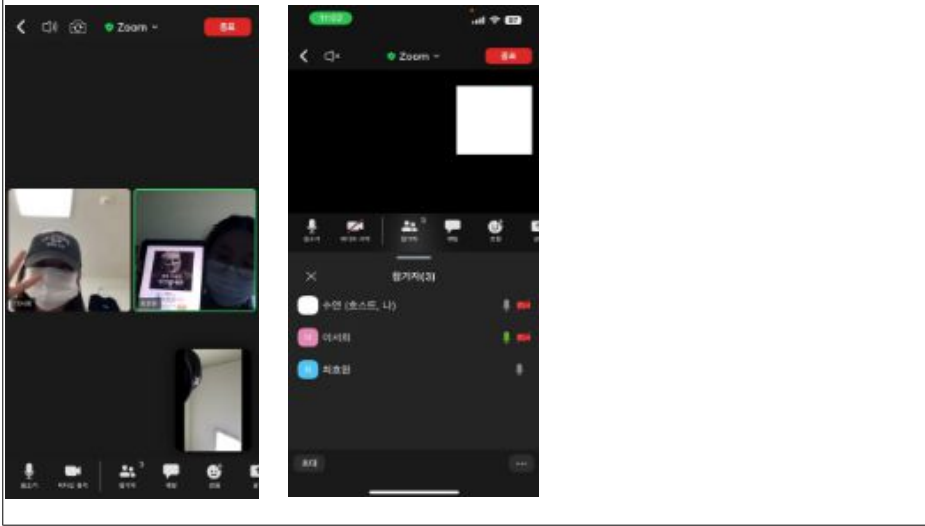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몽몽콘 독서클럽

1주차	일시	4월 1일 4 : 00 한성대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서희(2492031)	O
		채수연(2492068)	O
		최효원(2492084)	O
진도	도서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진도페이지: 1부, 2부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채수연, 이서희, 최효원]</p> <p>토론내용 작성</p> <p>1부와 2부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조원들과 공유하며 1주 차 토론을 시작하였다. 최효원 학우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자신이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채수연 학우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가 남을 지적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비난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 부분을 이서희 학우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였다.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 향상을 위해 이 책을 고른 만큼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였다. 채수연 학우는 가족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부모님께 칭찬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고, 이서희 학우는 장점을 하나씩 말해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게임을 오래 하는 동생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생을 설득하기로 한 최효원 학우의 목표도 들어보았다. 4주에 걸친 독서클럽 활동 후에 각자 설정한 목표의 결과와 기대효과를 발표하기로 하며 토론을 마쳤다.</p>		

3주차	일시	5월 2일 11 : 00 온라인 화상회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채수연(2492068)	○
		최효원(2492084)	○
		이서희(2492031)	○
진도	도서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진도페이지: 3부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이서희, 최효원, 채수연]</p> <p>먼저 각자 인상 깊었던 부분과 감상을 공유했다.</p> <p>이서희 학우는 6장에 '친구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때 친구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질투와 시기를 하기 때문이다' 부분이 인상 깊었고 진심으로 친구들의 성공을 기뻐해 주고 바랬던 적이 없던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되었다고 감상을 공유했다.</p> <p>채수연 학우는 9장에 '지금 현재의 당신에 대해 칭찬받을 만한 근거는 별로 없다 그러나 기억하라 화가 나 있고 완고한 태도를 가졌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역시 딱히 욕먹을 만한 근거가 많지 않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 남들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고 함부로 말을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감상을 공유했다.</p> <p>최효원 학우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마주치지 않게 될 것이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 내가 완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며 확실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을 옮긴 적이 있었던 경험을 반성했다고 감상을 공유했다.</p> <p>그리고 '상황을 설정해서 설득하기'를 진행했다.</p> <p>첫 번째 상황은 '나무가 있는 공원에서 불을 가지고 소시지나 계란을 구워 먹는 어린 소년들을 설득하는 상황'으로 설정했다</p> <p>어린 소년들 역할은 '이서희', '채수연'이 맡고 설득하는 입장은 '최효원'이 맡아, 상황극을 진행했다. 책 내용 중 '친절하게 굴어라.' 대목을 사용했고 특히 어린 애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상의했다.</p> <p>두 번째 상황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할머니께 전기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설득하는 상황'으로 설정했다. 경계심이 많은 할머니 역할은 '채수연'이 맡고 설득하는 입장인 직원은 '이서희'가 맡았다. 책 내용 중 '상대방이 말하게 만들어라.'라는 대목을 사용했고 경계심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 같다고 상황극에 대해 상의했다.</p>		

	일시	5월 7일 13 : 00 연구동 609호(김기홍 교수님 연구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서희(2492031)	O
		채수연(2492068)	O
		최효원(2492084)	O
	진도	도서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진도페이지: 4부, 5부
3주차	토론 내용	 <p data-bbox="715 1151 1267 1182">[좌측부터 김기홍 교수님, 최효원, 채수연, 이서희]</p> <p data-bbox="491 1189 1495 2024">이번 활동에서는 서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공유한 뒤 4부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 아홉 가지의 장단점과 어떤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토의했다. 이서희 학우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흡잡고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아이들이나 직원들을 비난한다.”라는 말에 공감하며 상대가 선을 넘어 과도하게 화를 냈던 경우를 떠올리며 감정에 지배당했던 자신을 반성할 계기가 되었다고 느꼈다. 최효원 학우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을 이끄는 방법 외에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를 읽고 자신이 어린 동생에게 칭찬을 안 해주고 왜 그렇게 했냐며 꾸짖었던 게 생각나 고쳐야겠다고 반성하게 해준 구절이라 소개했다. 채수연 학우는 ‘하루는 조세핀을 야단치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네는 조세핀보다 나이가 2배는 많고 사회 경험은 만 배 많지. 어떻게 개가 자네가 가진 시각, 판단력, 적극성을 가질 수 있겠어’에서 보통 우리가 자신보다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면 못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적을 하기 전에 그때의 나를 먼저 되돌아보고 격려를 먼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부에 나온 9가지 방법에 대해서 ‘규칙 1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에서 이서희 학우는 칭찬을 먼저 함으로써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 민감한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규칙 2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법’에서 사례로 최효원 학우는 최근 뉴스에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더니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도 사랑을 건네주는 일이 있었다고 기사를 공유해주었다. 채수연 학우는 ‘규칙 6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해주면 적용하면 좋을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배움에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재미를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p>	

	일시	5월 21일 13 : 00 연구동 609호(김기홍 교수님 연구실)	
4주차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서희(2492031)	O
		채수연(2492068)	O
		최효원(2492084)	O
진도	도서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진도페이지: 6부	
토론 내용	 <p data-bbox="687 1149 1294 1182">[좌측부터 김기홍 교수님, 최효원, 이서희, 채수연]</p> <p data-bbox="491 1234 1493 1525">먼저 인상적인 부분을 공유한 뒤 우리가 이제까지 읽은 ‘인간관계론’과 같은 자기계발서에 대해 조사하고 토의했다. 먼저 채수연 학우는 책 &lt;아빠는 잊어버린다&gt; 인용에서 자신이 주말에 부모님께 짜증 냈던 부분을 반성하였고 일상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지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최효원 학우는 2장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말아라’ 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분을 읽고 공감하며 인상 깊었다고 공유했다. 이서희 학우도 같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맞추는 경우를 반성한다고 이야기했다.</p> <p data-bbox="491 1536 1493 1906">이후 각자 자기계발서에 대해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먼저 최효원 학우는 ‘개발’과 ‘계발’은 어떤 것을 더 좋아지고 나아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계발은 주로 사람에게 잠재된 속성에서만 작용하고 개발은 그 의미가 사람, 사물 가릴 것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서희 학우는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꾸준히 찾는 이유로 교보문고 5월 베스트셀러를 근거로 들었다. 채수연 학우는 자기계발서가 시작된 역사를 미국의 오일쇼크를 들어 설명했고 최근 ‘mz세대’ 사이의 ‘갯생트렌드’가 확산되며 독서가 힙한 취미라는 인식과 마케팅 방법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계발의 목적이 ‘동기부여’라 덧붙였다.</p> <p data-bbox="491 1917 1493 2074">교수님께서서는 자기계발서의 고전인 &lt;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gt;를 추천하시며 IMF 때 직원들에게 선물한 2차 함의를 탐구하도록 권유하셨다. 또한 함께 독서클럽을 하시면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기계발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얘기하셨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채수연 (2492068)	이번 독서클럽을 진행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책을 자주 읽게 된 것도 물론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고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았다. 특히 교수님과 함께하여 책을 읽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문학문화콘텐츠라는 진로와 엮어 출판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탐구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책의 도움을 실천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목표를 생각하며 실천적인 책임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독서클럽을 통해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해서 책에 대한 흥미가 더욱 올라갈 것 같다.
	2	최효원 (2492084)	'나는 사람들을 잘 대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읽어보려고 제안한 책인데, 혼자라면 다 못 읽었겠지만, 사람들과 함께 책 내용을 공유하면서 같이 끝까지 읽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읽고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읽고 알게 된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의 적용하는 활동은 어렵고 책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독서클럽이 끝나도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의 내용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로 책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이서희 (2492031)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읽게 되었지만 결국은 '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이르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다.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독서클럽을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책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활동 자체가 무언가를 실천한 것 같아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또한 교수님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책의 시장 조사나 출판 트렌드 분석 등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4		
	5		